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543>

JCCT 2024-7-63

교내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교 4학년의 현장실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 적용-

The Impact of Simulation Education within Schools on the Clinical Practice Ability of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Applying Community Nursing

김 진*, 차남현**

Kim Jin*, Cha Nam H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 후 임상에서의 현장실습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간호학과 4학년 1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연구 설계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도구는 비판적 사고, 자기효능감, 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이었고 통계 분석은 SPSS 27.0 버전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실무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실무능력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실무능력에의 영향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beta=.85$, $p<.001$)와 자기효능감이었고($\beta=.25$, $p<.05$) 설명력은 57.0%($F=13.25$, $p<.001$)이었다.

주요어 : 현장실습 능력, 비판적 사고, 자기효능감, 실무능력, 임상실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abilities in nursing students after implementing simulation education. The study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were conducted from September 1st to October 30th, 2022, targeting 106 fourth-year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employed descriptive correlational analysis. The research tools included critical thinking, self-efficacy, practical competence, and practicum satisfaction, with statistical analysis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27.0. The results revealed Practical competenc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racticum satisfaction, and it demonstrat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ritical thinking and self-efficacy. Factors influencing practical competence were practicum satisfaction ($\beta=.85$, $p<.001$) and self-efficacy ($\beta=.25$, $p<.05$),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7.0% ($F=13.25$, $p<.001$).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abilities, Critical thinking, Self-efficacy, Practical competence, Practicum satisfaction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과에서의 현장실습은 실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실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으로 미래 간

호사로서 간호술기를 익히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1]. 그러나, 간호술기에 미숙한 학생들의 현장실습은[2] 환자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더구나, 환자의 인권 존중과 안전이 중요시되면서 학생들은 실습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정회원,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국립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24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Received: April 24, 2024 / Revised: May 25, 2024

Accepted: June 14, 2024

**Corresponding Author: yeoreo@daum.net

Dept. of Nursing, Andong National Univ. Korea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현장에서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확장되면서[3]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제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시나리오를 통해 경험하고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4]. 최근에는 실제적인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환자 시뮬레이터(Human Patient Simulator: HPS)가 활용되면서[3] 학생들이 복잡한 현장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다.

교내 시뮬레이션실습은 간호대학생이 현장실습을 가기 전 교내 실습실에서 현장과 비슷한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간호 대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한 후 debriefing (디브리핑)을 통해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게 함으로[5]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습만족도[6], 그리고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일 수 있다[4,7]. 또한 실습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술기를 안전하고 표준화된 환경에서 학생들의 수행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반복 수행할 수 있어[8]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여 자신감과[4,9] 학습만족도[4], 자기 효능감은[10] 물론 간호실무 능력[11,12]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이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은 병원 실습과는 달리 지역사회 거주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대상자와 가족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상자를 사정하고 진단 및 계획을 세워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간호 교과목 중 실습 교과목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지역사회간호학이 가장 적었는데[13],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활용한 연구는 가정에서의 환경 사정[14],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간호사정[15], 가정간호에서의 환자 안전과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시뮬레이션[16], 지역사회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역량증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17], 고혈당 노인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 시뮬레이션[18,19], 간호학생 대상 방문간호 비위관 관리교육 시뮬레이션 모듈 평가 및 적용 효과[20] 등 소수이다.

선행연구들은 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이를 현장실습

능력에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습교육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진행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학습방법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의 효과성 외에도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자기효능감과 간호실무능력을 높여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어 이들 정의적 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학교내 시뮬레이션 교육 후 실습현장을 경험한 간호대학교 4학년생의 현장실습능력(비판적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현장실습 능력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실무능력에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간호대학교 4학년생의 현장실습능력(비판적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교 4학년생의 일반적 특성별 현장실습능력(비판적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간호대학교 4학년생의 현장실습능력(비판적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간호대학교 4학년생의 간호실무능력의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내 시뮬레이션교육과 보건소 현장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능력(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변수간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과 J 시 소재 J 대학과 A 시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로 근접 모집단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학교 내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이후 실습 현장에서 지역사회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 4학년생으로 의사소통과 자가보고 설문지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본 수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효과 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power value)= .80으로 36명씩 총 85명의 표본 수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기간에 대상자 탈락을 고려하여 총 11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 응답이 불완전한 4명을 제외한 총 10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유무, 경제 수준, 수업 만족도 총 5문항이었다.

2) 현장실습능력: 취업 및 직업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학습하는 실습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실습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를 말한다.

(1) 비판적사고 성향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사고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Park [21]이 개발하고 Lee [22]이 사용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지적 열정/건전한 회의성(7문항), 지적 정직성(6문항), 신중성(4문항), 객관성(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코딩을 변경하였다. 본 도구 점수는 최저 20점부터 최고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2]의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8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Pintrich와 DeGrootLee [23]의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 진단도구(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중 LeeLee [24]가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번안하여 활용한 도구로 총 9개 문항,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intrich와 DeGrootLee [23]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 Lee Lee [24]의 연구에서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이었다.

(3) 간호실무능력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Schwirian [25]의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6-D Scale) 를 기반으로 Lee 등이[26]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46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6점부터 최고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실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의 [26]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6이었다.

(4) 임상실습 만족도

Lee [27] 가 개발하고 Koo 와 Im이[28] 수정 보완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 20문항 중 실습내용(2문항), 실습지도(3문항),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각 1문항씩 총 8문항을 이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8점부터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Koo 와 Im의[28]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이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이었다.

4. 자료수집

1) 대상자 모집

J 시 소재 J 대학과 A 시 소재 A 대학 2개교에서 연구의 목적,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시뮬레이션 운영

간호대학교 4학년 학생에게 교내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매주 4시간씩 1학점으로 운영하였다. 시뮬레이션 수업은 시나리오 2개와(독거노인 시뮬레이션, 산업장

근로자 시뮬레이션) 핵심술기 3개를 8주 수업에 걸쳐 진행하였다(Table 1).

3) 현장실습

시뮬레이션 수업 이후 보건소 현장실습 2주를 수행한 학생들에게 일반적 특성과 현장실습능력(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을 측정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0~15분 가량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는 작성이 끝난 직후 바로 회수하였다.

표 1. 시뮬레이션 주차별 운영
Table 1. Simulation weekly operation

week	Simulation content
1	Orientation and core skill 1 video viewing and practice
2	Core skill 1 evaluation, Simulation 1 (elderly living alone) practice
3	Simulation 1 (elderly living alone) evaluation, Core skill 2 video viewing and practice
4	Nursing process evaluation and feedback
5	Core skill 2 evaluation, Simulation 2 (industrial worker) practice
6	Simulation 2 (industrial worker) evaluation, Core skill 3 video viewing and practice
7	Core skill 3 evaluation
8	Nursing process evaluation and feedback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IBM Corp., Armonk, NY: IBM Corp., 20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현장실습능력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1040191-202303-HR-003-01)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명성, 연구참여 철회 가능, 불이익 없음 등을 설명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대학생 14명(10.0%), 여자 대학생 92명(90.0%)으로 연령은 평균 21.78세이었다. 경제상황은 중간 이상이 대부분이었고(94.0%),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8.0%, 수업 만족도는 대부분 보통 이상이라고 88.0%가 응답하였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6)

Characteristics	Variables	n(%)
Gender	Male	14(10.0)
	Female	92(90.0)
Age	Mean±SD	21.33±0.74
Economic level	Hjgh	11(10.0)
	Middle	89(84.0)
	Lower	6(6.0)
Religion	Yes	73(68.0)
	No	33(32.0)
Lesson satisfaction	Satisfaction	52(78.0)
	Regular	22(10.0)
	Unsatisfactory	32(12.0)

2. 대상자의 현장실습능력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현장실습능력 중 간호실무능력 3.94±0.45, 임상실습 만족도 3.88±0.64점, 비판적사고 3.33±0.32점, 자기효능감 3.14±0.44 순이었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현장실습능력의 정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linical practice abilities (N=106)

Variables	Range	Mean±SD	Minimum	Maximum
Critical thinking	1~5	3.33±0.32	2.65	4.30
Self-efficacy	1~5	3.14±0.44	2.00	4.22
Practical competence	1~5	3.94±0.45	3.00	5.00
Practicum satisfaction	1~5	3.88±0.64	2.13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현장실습능력 변수의 차이

간호대학교 4학년생의 일반적 특성별 현장실습능력(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업 만족도는 자기효능감($F=3.02, p<0.5$), 실무능력($F=4.72, p<0.1$), 임상실습 만족도에($F=6.62, p<0.01$)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임상실습 만족도($t=-2.17, p<0.05$)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

표 4. 일반적 특성별 대상자의 현장실습 능력의 차이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Clinical practice abilities (N=106)

Characteristics	Variables	Critical thinking		Self-efficacy		Practical competence		Practicum satisfaction				
		M±SD	F or t(p)	M±SD	F or t(p)	M±SD	F or t(p)	M±SD	F or t(p)			
Gender	Male	68.18±9.34	.49	29.73±6.07	.95	61.64±5.60	-.15	26.60±5.41	-2.17			
	Female	67.08±6.49	(.62)	28.16±4.92	(.34)	62.05±9.21	(.88)	31.70±4.83	(.04)			
Economic level	High	66.08±4.89	1.16	31.15±5.51	2.9	62.05±9.21	.000	29.80±5.02	2.44			
	Middle	67.16±7.26		28.00±4.93		(.06)		62.00±9.62		(1.00)	31.68±4.69	(.10)
	Lower	72.00±3.56		25.37±5.07		62.00±8.95		24.00±9.90				
Religion	Yes	67.18±7.03	-.10	28.57±4.74	.55	62.00±8.79	-.56	30.04±5.38	-1.48			
	No	67.33±6.63	(.92)	27.93±5.78	(.59)	61.63±7.94	(.58)	32.53±4.50	(.15)			
Lesson † satisfaction	Satisfaction ^a	67.89±7.54	.50	30.48±5.02	3.02	64.59±9.04	4.72	32.57±4.57	6.62			
	Regular ^b	66.54±4.89		28.31±3.88		(.02)		57.92±7.63		(.002)	29.88±4.41	(.004)
	Unsatisfactory ^c	66.36±6.53		26.68±4.04		a>b>c		59.36±7.48		a>b,c	17.00±0.12	a>b>c

† Scheffe test

났다. 즉,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자기효능감, 실무 능력,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다(Table 4).

4. 대상자의 현장실습 능력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현장실습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무능력은 비판적사고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무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표 5. 대상자의 현장실습 능력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abilities (N=106)

Variables	Critical thinking	Self-efficacy	Practical competence	Practicum satisfaction
	r (p)	r(p)	r (p)	
Critical thinking	1			
Self-efficacy	.064 (.52)	1		
Practical competence	.214 (.027)	.416 (<.001)	1	
Practicum satisfaction	.231 (.163)	.117 (.484)	.737 (<.001)	1

5. 대상자의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케이스 진단 시 이상점(Outlier) 6개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6으로 검정통계량 (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Tolerance(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교 4학년생의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본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3.25, p<.001). 간호 대학생의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β=.85, p<.001) 자기 효능감(β=.25, p<.05)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57.0%이었다(Table 6).

표 6.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6. Factors influencing Practical competence(N=106)

Variables	B	S.E	β	t(p)	Adj R ²	F
(Constant)	10.74	10.27		1.05 (.30)	.570	13.25 (<.001)
Critical thinking	-.01	.13	-.01	-.10 (.92)		
Self-efficacy	.38	.17	.25	2.16 (.04)		
Practicum satisfaction	1.34	.21	.85	6.39 (.000)		
Lesson satisfaction†	3.21	1.96	.21	1.64 (.11)		

† Dummy analysis

IV. 논 의

본 연구는 교내시뮬레이션과 현장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4학년생의 현장실습능력 변수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간호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현장실습능력(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간호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은 중간 점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는 현장실습능력에 해당하는 변수는 간호실무능력>임상실습 만족도>비판적사고>자기효능감 순으로 높았고 모든 변수가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Bae [29]의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Kwon [30] 등과 Whang [31]의 연구보다는 낮게 나타나 후속연구를 통해 비교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자기효능감, 실무능력,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하다고 한 Kim 등[32]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학과 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31], 임상수행 능력 [33], 자기효능감[28], 임상실습만족도[34]가 높으며, 성별[28]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기효능감 강화 훈련, 임상실습 경험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간호 대학생의 실무능력은 비판적사고와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무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무능력이 비판적 사고 성향[35,36], 임상실습 만족도[34], 자기효능감[37]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간호 대학생의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68.9%이었다. 이는 임상에서의 실무능력에 임상실습만족도[38]와 자기효능감 [39]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간호업무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간호지식과 기술을 적용해야 하므로[40] 실무능력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다하겠다.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얻는 경험

이 긍정적인일 때,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실습의 동기 부여를 높이고, 실무에서의 기술과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며, 실제 실습현장에서 업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 이는 실습 중에 배우는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임상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다양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 기회 제공 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생의 현장실습능력 변수 중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실무능력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었다.

시뮬레이션 학습과 실습현장에서의 경험이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의 실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판적 사고와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만족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생들이 실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 개발은 물론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강화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워크샵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습환경 개선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효과는 연구자 편이에 의해 간호학과 4학년생에 한정되어 추출되었으므로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 대상자와 다양한 개념으로 실무능력 영향 효과를 지속적으로 재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immers PC, "Simulation as a learning tool in the oncology setting", *Journal of the Advanced Practitioner in Oncology*, Vol. 5, No. 3, pp. 217-223, 2014.
- [2] Won JS, Kim HS,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of the admitted patients in a hospital", *Annual Bulletin of The Bum-Suk Academic Scholarship Foundation*, Vol. 6, pp. 101-110, 2002.
- [3] Lee SO, Eom MR, Lee JH, "Use of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1, pp. 90-94, 2007.
- [4] Murray TA, Simmons KJ, Boyd E, Holmes S, Bobo TL, Turner J, "Evidence-based strategies to advance BSN student divers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39, pp. 122-130, 2022.
- [5] Moran V, Wunderlich R, Rubbelke C, "Simulation: best practices in nursing education, Cham: Springer. 2018. DOI:10.1007/978-3-319-89821-6
- [6] Oh SY, Kim HS, "The effect of virtual simulation learning experi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4, pp. 741 - 742, 2021. DOI:10.22251/jlcci.2021.21.24.547
- [7] Choi SH, So HS, Choi JY, Yoo SH, Yun SY, Kim MH, et al., "Comparison of blended practicum combined e-learning between cooperative and individual learning on learning outc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41-349, 2014. DOI:10.5977/jkasne.2014.20.2.341
- [8] Bambini D, Washburn J, Perkins R, "Outcomes of clinical simulation for novice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nfidence, clinical judgment",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 30, No. 2, pp. 79-82, 2009.
- [9] Kim YH, Hwang SY, Lee AY,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37-46, 2014. DOI:10.5977/jkasne.2014.20.1.37
- [10] Kim EO, *The integrative review of korean studies on the nursing simulation*[dissertation]. Seoul: Kyunghee University; 2016. p. 1-82.
- [11] Lee SJ, Park YM, Noh SM,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with hybrid model for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nd self confiden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5, No. 2, pp. 170-182, 2013. DOI: 10.7475/kjan.2013.25.1.170
- [12] Chae MJ, Choi SH, "Effectiveness of student learning with a simulation program focusing on cardiac arrest in knowledge,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8, No. 4, pp. 447-458, 2016. DOI:10.7475/kjan.2016.28.4.447
- [13] Park SJ, "A structural model on the nursing competencies of nursing simulation learners",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Chungju*, 2017.
- [14] Campbell M, Themessl-Huber M, Mole L, "Using simulation to prepare students for interprofessional work in the communit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6, No. 7, p. 340, 2007. DOI:10.3928/01484834-20070701-10
- [15] Kim-Godwin YS, Livsey K R, Ezzell D, Highsmith C, "Home visit simulation using a standardized patient",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9, No. 2, pp. e55-e61, 2013. DOI: 10.1016/j.ecns.2011.09.003
- [16] Phillips J, Grant JS, Milligan GW, Moss J, "Using a multicultural family simulation in public health nursing education",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8, No. 5, pp. e187-e191, 2012.
- [17] Ha YK, "Curriculum integration of communication simulation to community health nursing course for nursing students: pilot stud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 2329-2337, 2015. DOI:10.5762/KAIS.2015.16.4.2329
- [18] Kim YJ, Park JH, "Effects of visiting nursing simulation-based training for community nurs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4, No. 2, pp. 21-35, 2016.
- [19] Baek HC, "Implementing home visiting simulation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 No. 1, pp. 40-49, 2013. DOI:10.5932/JKPHN.2013.27.1.40
- [20] Baek HC, Lee YR, Lee JE, Lee JH, Kim HS, "Evaluation and application effect of a home nasogastric tube feeding simulation module for nursing students: an application of the nln

- jeffries simulation the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8, No. 3, pp. 324-333, 2017. DOI:10.12799/jkachn.2017.28.3.324
- [21]Park SH,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3, No. 4, pp. 93-112, 1999.
- [22]Lee JD, Lee JS, “The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3, pp. 434-443, 2006.
- [23]Pintrich PR, De Groot EV,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No. 1, pp. 33-40, 1990.
- [24]Lee IS, “Self-regulation, self-efficacy and e-learning strategies during e-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 Vol. 19, No. 3, pp. 41-68, 2003. DOI:10.17232/KSET.19.3.41
- [25]Schwirian PM,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Vol. 27, No. 6, pp. 347-351, 1978.
- [26]Lee WH, Kim CJ, Yoo JS, Hur HK, Kim KS, Lim S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Nursing*, Vol. 13, pp. 17-29, 1991.
- [27]Lee SJ, “Level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0. No. 2, pp. 41-52, 1980.
- [28]Koo HY, Im HS,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 pp. 311-321, 2013. DOI: 10.5392/JKCA.2013.13.01.311
- [29]Bae D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on graduation time”,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5.
- [30]Kwon IS, Lee GE, Kim GD, Kim YH, Park KM, Park HS,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6. No. 6, pp. 950-958, 2006.
- [31]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32]Kim YM, Yu JY, Lee MS, “Effect of simulation-based integrated practice for high-risk newborn on problem solving process, resilien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ie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2, pp. 343-352, 2018. DOI:10.21742/AJMAHS.2018.12.78
- [33]Kim MH, Ha YS, Na YJ, “The effects of the home health nursing practical education program applying simulation on knowledge related home health nurs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o. 12, pp. 05-616, 2021. DOI:10.14400/JDC.2021.19.12.605
- [34]Kim KE, Lee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85-896, 2014. DOI: 10.5392/JKC A.2014.14.10.885
- [35]Kwon YH, Kwag OG,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0, pp. 4572-4581. 2012. DOI:10.5762/KAIS.2012.13.10.4572
- [36]Kwon, KN,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n a city”,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5.
- [37]Park JW, Kim CJ, Kim YS, Yoo MS, Yoo HR, Chae SM, et al.,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 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24, No. 3, pp. 223-231, 2012. DOI:10.3946/kjme.2012.24.3.223.
- [38]Sung MH,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 1, pp. 18-24, 2012. DOI:10.14370/JEWN.2012.18.1.018
- [39]Hyeon YH,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attitude of patient safety, and safety care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5.
- [40]Shepherd CK, McCunnis M, Brown L, Hair M, “Investigating the use of simulation as a teaching strategy”, *Nursing Standard*, Vol. 24, No. 35, pp. 42-48, 2010. DOI:10.7748/ns2010.05.24.35.42.c7751